

동계올림픽 현장 밀라노서 작품 선보이는 김근태 작가



“서로의 삶 존중... 동등한 존재로 마주 서기 제안”

‘ArtPara@Milano...’ 그룹전 기획·출품 내달 8일부터 30개국 142 작가 참여... 현지 공간 맞춰 신작 20점 출품 “자신의 또 다른 얼굴 발견하길”... 3월 4일 출국 활동

발달장애아동을 20년 넘게 그려온 그는 자신도 5·18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 출신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탓일까. 목포 고하도의 공생 재화원에 있는 발달장애아들을 만나면서 그는 그들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아래로부터 사랑을 베풀며 화면을 다져온 그는 국내 서양화가 최초로 2015년 미국 UN본부에서 전시를 여는 기록을 세운데 이어 이후 리우 패럴림픽 초대전, UN제네바사무국 초대전에서 장애아동들과의 그룹전, 평창 패럴림픽 전시, 5대륙 발달장애 작가들이 함께한 ‘2022 들꽃처럼 별들처럼’전 등을 통해 그가 추구하는 회화정신을 심분 발전했다. 사랑과 나눔, 포용 정신이 투영된 작품들은 그가 치를 더할 수 밖에 없었다. 주인공은 나주에 창작실을 두고 하루 종일 작업에 매진해온 김근태 작가가

주인공으로, 그가 이번에는 동계올림픽 현장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ArtPara@Milano Cortina 2026’ 그룹전에 참여한다. 기획 역시 김 작가가 맡아 주목된다. 전시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구 포르나체 골라에서 열리며, 30개국 142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장애와 비장애, 개인과 사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결의 미학을 탐구하는 이번 밀라노 전시는 ‘공존과 연결’을 중심 주제로 진행된다. 전시 큐레이팅은 존재의 존엄(Dignity of Being), 시선의 교차(Crossing Gazes), 공존의 풍경(Landscape of Coexistence) 등이다. 김 작가는 밀라노 공간을 위해 제작되는 신작 등 20점을 출품한다. 전시에 앞서 김 작가를 최근 만나 회화 전반에 대해 들어왔다. 장애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 예술가적 기질을 발휘해 현재도 몇 가지 질병을 앓으면서 200호 25점의 대형 작업을 이어가고 있을 만큼 창작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회화 인생 30년 동안 작가의 작업적 변화 또한 폭과 깊이가 더해졌다. 기술적, 서사적 측면에서 발전해온데다 재료나 스타일, 작품 속 인물과의 관계 형성 방식 등 여러 변화지점들이 보인다. 초기의 작업이 내면의 고통과 정체성의 해부에 가까웠다면, 최근의 작업은 관계와 공존의 문제로 확장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재료의 물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유하게 됐고, 화면 안 인물의 내면세계로 관객을 향하도록 구조화했다. 또 인물·작품·관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자신이 오늘날 지향하는 관계는 연민이 아닌 공감. 동정이 아닌 존엄의 인식이라는 반응이다. 작가는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마주 서는’ 경험을 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오대륙 발달장애아동과의 협업은 ‘대상’에서 ‘주체’로의 전환인데, 그들이 재현되는 것은 객체가 아니라, 예술의 존재론적 주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예술이 인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예술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 ‘장애’라는 범주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타자화된 시선을 해체하고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드러내는 미학적 전환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김 작가는 이전 전시를 통해 장애인정과 혁신이 공존해온 밀라노 현지인들에게 형태를 넘어 정신을 만들어온 만큼, 이런 정서와 맞닿기를 기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오랜 시간 예술과 디자인, 장애인정과 혁신이 공존해온 밀라노는 걸음으로 세련되고 강인하지만, 동시에 가족과 공동체, 관계의 온기를 소중히 여기는 도시라고 느낍니다. 광장의 카페에서 이어지는 대화, 세대를 잇는 장애인정,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 속에는 이미 ‘공존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죠. 작품 속 인물들은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존엄을 지닌 존재로서 관객을 응시하는 만큼 그 시선은 동정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동등한 존재로 마주 서기를 제안해요. 전시를 계기로 타인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김 작가는 오는 3월 4일 출국, 이탈리아 현지에서 전시 관련 활동을 펼친 뒤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근태 작가 rainidea@gwangnam.co.kr

“가장 강한 무기는 기억·기록”... ‘소년이 온다’ 오마주

박기복 감독, 5·18 소재 세 번째 신작 ‘밥’... 내달부터 특별상영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가장 강한 무기는 기억과 기록입니다. 정치보다 깊고, 이념보다 따뜻한 ‘밥’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연출한 박기복 감독이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 세 번째 연작으로 신작을 선보이기에 앞서 이치범 밝혔다. 여기서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와 평등, 존엄의 상징이라는 게 박 감독의 설명이다. 신작 ‘밥’은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낙화진향-꽃은 저도 향기는 남는다’에 이은 세 번째 5·18광주항쟁 영화다. 후반 작업을 막 마쳤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오마주했다. 굵어 죽은 모녀

의 영혼을 위로하는 무용수의 의식 속에 소설 속 인물 동호의 ‘전생’이 스며들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는 ‘지금, 동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소설 속 동호처럼, 영화 속 동호 역시 대사가 없다. 그러나 무대사(無臺詞) 형식과 눈빛, 몸짓, 구음(口音) 음악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소설인 ‘소년이 온다’가 언어의 밀도로 기억을 증언했다면, ‘밥’은 침묵과 몸의 움직임으로 기억을 재현한다. 서사 중심 영화에 익숙한 관객에게는 낯설 수 있으나, 감각의 충위를 통해 오월의 현재성을 질문하는 방식이다. 특히 시간의 경계를 해체한 서사 구조, 방역 요원으로 대체된 계엄군의 이미지 등 실형적 영화 문법이 눈에 띈다. 형식은 파격적이지만, 국가폭력과 기억의 문제를 다루는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하고 직관적이라는 평가다. 주요 촬영지는 화순 이양 쌍봉사, 광주 회경루, 구 적십자병원, 충장로 구도심 등 광주·전남의 역사적 공간이다. 작품은 광주문화재단 광주

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사업 2025~2026년 연속지원 선정작으로 마련됐다. 전남예술고 무용과 박소희, 연극과 윤성희, 노건우, 박서연 등이 출연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으로 표현했다. 영화 제작이 마무리되면서 제작사 무당벌레필름은 박 감독의 전작 ‘낙화진향-꽃은 저도 향기는 남는다’와 신작 ‘밥’을 묶은 오픈버스 형식의 특별상영회를 마련한다. 상영회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완전한 단죄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오프닝 무대는 김향미 시 낭송가의 한강 작가의 시 ‘회상’ 낭송으로 상영회 문을 연다. 박 감독은 “기억의 문제를 다음 세대의 몸을 통해 이어간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동체적 퍼포먼스로 이해하면 된다”며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을 촉구하기 위해 상영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열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예술공간 집은 ‘존재의 메기 :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이라는 기획전을 오는 28일까지 갖는다. 사진은 전시 전경.

청년 작가들의 작업 다양한 관점에서 공유 나서

예술공간 집 기획전 28일까지 Part.2 진행... 10명 작가 출품

예술공간 집은 ‘존재의 메기 :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이라는 기획전을 오는 28일까지 갖는다. 이번 전시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 20명이 참여하는 연속 기획전으로, Part.1과 Part.2로 나눠 진행되며 동시대 예술가들이 각자의 삶과 작업 속에서 마주해온 ‘긴장과 자극의 지점’을 조명하고 있다. 전시 제목의 ‘메기’는 정체된 환경에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를 의미하는 ‘메기 효과’(Catfish Effect)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전시는 메기를 단순한 경쟁이나 외부 자극으로 한정하지 않고, 예술가 스스로 끊임없이 흔들고 질문하게 만드는 내적·외적 긴장의 장치로 확장해 해석한다. 여기서 ‘존재의 메기’는 타인이나 환경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불안과 자극, 멈추지 않게 하는 힘 그 자체를 가리킨다. 지난 1월 28일부터 진행된 Part.1 전시에는 강동호, 김민경, 김은택, 문진성, 박세현, 박희문, 윤우제, 이윤빈, 조유나, 최윤정 작가가 참여했다. 참여 작가들은 회화, 드로잉, 입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자의 작업을 긴장 상태로 유지시키는

감각과 태도를 시각화하며, 동시대 청년 예술가로서 마주한 현실과 내면의 움직임들을 드러냈다. Part.1 전시와 연계해 진행된 워크숍 ‘당신의 메기는 무엇입니까?’는 지난 5일 진행됐으며, 참여 작가들이 직접 출품작을 소개하고 자신의 작업 속에서 작동하는 ‘메기’를 공유하는 자리로 운영됐다. Part.1 워크숍은 고영재 학예연구사(광주시립미술관), 양초롱씨(독립큐레이터·미술평론가)가 패널로 참여해 지역 청년 작가들의 작업을 제도권 미술관과 비평의 시선에서 살펴봤다. 이어 Part.2 전시는 지난 11일부터 2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 중이다. 권애중, 김진, 박우인, 송미경, 유기는, 윤성민, 윤중훈, BAWUEE(정찬현), 조성민, 하도훈 등 또 다른 10명의 청년 작가 출품했다. Part.2에서는 각자의 작업 안에서 형성된 고유한 긴장과 자극의 지점을 제시한다. 또 워크숍 ‘당신의 메기는 무엇입니까?’가 26일 진행되며, 임은신 대표(서울 도시살롱 갤러리), 양초롱씨가 패널로 참여해 지역을 넘어 서울을 기반으로 한 공간 운영자의 시선을 더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